

지적장애학교 초임 전맹교사의 교직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홍재영*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요약》

이 연구에서는 지적장애학교 초임 전맹교사의 경험을 토대로 이들이 교직 적응과정에서 겪는 갈등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지적장애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 4명이었다. 자료는 심층 면담과 기타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NVIVO 1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귀납적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학교 초임 전맹교사들은 '구성원 및 환경과 갈등: 배려와 배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적장애학교 초임 전맹교사들은 '수업에서의 갈등: 막막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적장애학교 초임 전맹교사들은 '내적 갈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적장애학교에 근무하는 초임 전맹교사들의 교직 적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전맹교사가 전문성 있는 교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전맹교사, 지적장애학교, 초임교사, 교직 적응, 질적 사례연구

* 주저자 (ds3atp@jj.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임교사라면 누구라도 좋은 교사로 성장하고 싶은 목표가 있을 것이다. 좋은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 함양과 함께 교사로서 바람직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원만하게 교직에 잘 적응하여야 한다(김은진, 2017). 교직사회화의 맥락에서 볼 때, 초임교사의 교직 적응은 자신이 속한 학교사회 안에서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정확하게 알고, 학교가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권순우, 2013; 허영주, 2017).

교직에 입문하면서 교사는 수업활동, 생활지도, 인간관계, 공식적인 업무, 비공식적인 업무와 같은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게 된다(김경철, 김안나, 2010; 최혜진, 권유선, 2017).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초임교사는 자연스럽게 교직에 적응하게 된다. 초임교사 시기는 교사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서, 교사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이윤식, 김광범, 2007). 따라서 교사 발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교직 초기의 경험은 향후 전문성 있는 교사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노지영, 2014; Stolp & Smith, 1995).

그러나 선행 연구(곽노의, 배정호, 2012; 김민환, 2016)에 따르면, 초임교사가 교직에 잘 적응하기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초임교사는 교직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교육관, 수업관, 학생관 등에서 현실적인 도전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하여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이윤식 외, 2007). 또한, 초임교사는 교직 적응과정에서 교사로서 전문성, 동료교사와 상호작용, 학생과 상호작용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함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노지영, 2014). 이러한 갈등은 초임교사로 하여금 교육활동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직 사회에서 겪는 시행착오, 혼란, 좌절, 갈등, 무기력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권혁일, 2010; 박주희, 홍원표, 2018; 조영재, 2015).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일반교육계에서는 초임교사의 교직 적응(윤희경, 2016; 이명훈, 2016; 이주연, 한대동, 2005; 정형수, 양정호, 2016; 최혜진, 권유선, 2017; 허영주, 2017)과 초임교사가 겪는 갈등과 정체성(김민환, 2016; 노지영, 2014; 안아라, 김한별, 2013; 이윤식, 김광범, 2007), 초임교사의 심리적 소진(정유경 외, 2018; 홍우림, 2015)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초임교사들의 교직 적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 하여 특수교육 학계에서도 특수학교 초임교사의 교직 적응(박병도, 2004; 박병도, 손천택,

2005; 박재범, 2005; 2010; 박재범, 양정호, 2007; 이순자, 2017; 황순영, 2006), 특수학급 초임교사의 교직 적응(김향지, 2009; 양승기, 김호연, 2011; 조정우, 임경원; 2017), 장애인 교사의 교직 적응(권순우, 2013; 박경옥, 서선진, 2017; 허세영, 2013) 등과 같은 특수교사의 교직 적응 연구를 통하여 특수교사로서 다양한 역할 수행과 그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철학과 그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2004년부터 공립학교 교원을 선발할 때, 장애인 교원의 선발 인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선발하고 있다(박경옥, 서선진, 2017). 최근 3년 동안 공립 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살펴보면, 전체 특수교사 선발 인원의 약 9.1%(2016학년도 598명 중 53명, 2017학년도 520명 가운데 50명, 2018학년도 1008명 가운데 89명) 정도를 장애인 교원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시·도 교육청, 2015; 2016; 2017). 그런데 전국에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가 대전과 부산 등 2곳 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인 교원으로 선발된 시각장애인 교사는 대부분의 경우 시각장애 특수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초임교사를 시작하게 된다. 더욱이 시각장애인 교사 가운데 전맹교사는 시각장애 특수학교 이외의 학교에서 교직을 수행할 경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육활동이 시각적인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교사 가운데 특히, 전맹교사가 전문성 있는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알아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적장애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의 경험을 토대로 이들이 교직 적응과정에서 겪는 갈등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1) 초임 전맹교사

이 연구에서 초임 전맹교사는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교사로 임용된 지 3년 미만의 시각장애인 교사를 말한다. 첫째, 시각장애의 정도는 전맹(blind)으로 시각적인 과제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점자를 주요 문해 매체 수단으로 사용하는 교사이다. 둘째, 교사 발달 연구에서 초임교사의 교직 기간을 일관되게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황순영, 2006), 이 연구에서의 초임교사는 교사로 임용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교사로 설정하였다.

II.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구성주의(constructionism) 인식론 아래 상징적 상호 주의(symbolic interactionism)의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지적장애학교에 근무하는 교육 경력 3년 미만의 초임 전맹 교사들이었다. 공립 지적장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가 모집단에서 위치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초임 전맹교사에게서 다른 연구 참여자를 소개 받아 확장하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다. 소개 받은 연구 참여자 가운데 연구자가 사전에 선정한 연구 참여자 선정 준거에 부합하는 교사를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사전에 선정한 연구 참여자 선정 준거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적인 과제 수행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전맹교사를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과제 수행이 가능한 시각장애인 교사는 시각적 과제 수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면, 비장애인 교사의 경험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둘째, 전맹교사 가운데 지적장애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교사를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지적장애학교에서 전맹교사가 겪는 경험은 비장애인 교사의 그것과는 매우 다를 것이고, 이러한 경험들은 매우 독특한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셋째, 공립학교 교원 공개 채용과정인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된 시각장애인 교사로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경험이 현직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준거에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는 모두 4명이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소개 받을 때 마다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았다. 이 연구에 참여한 초임 전맹 교사에게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이름 ¹⁾	성별	나이	문해 매체 수단	장애정도	교육경력
강병준	남	32	점자	시각장애 1급	1년 9월
최준식	남	30	점자	시각장애 1급	2년 9월
김수진	여	27	점자	시각장애 1급	2년 9월
이서현	여	27	점자	시각장애 1급	2년 3월

1) 강병준

강병준 선생님은 남자 만 32세로 시각장애 1급의 전맹교사이다. 강병준 선생님의 교직 입직 시기는 2016년 3월이고, 인터뷰 당시 교육 경력은 1년 9개월이었다. 그리고 현재 중등 과정에서 교과 전담 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강병준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는 A시에 있는 공립 지적장애학교이다. 이 학교의 학급은 초등과정 6 학급, 중학과정 6 학급, 고등과정 7 학급, 전공과정 4 학급으로 총 22개 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총 86명이 근무하고 있고,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총 89명이다.

2) 최준식

최준식 선생님은 남자 만 30세로 시각장애 1급의 전맹교사이다. 최준식 선생님의 교직 입직 시기는 2015년 3월이고, 인터뷰 당시 교육 경력은 2년 9개월이었다. 그리고 현재 전공 과정에서 교과 전담 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최준식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는 B시에 있는 공립 지적장애학교이다. 이 학교의 학급은 유치원 1학급, 초등과정 13 학급, 중학과정 11 학급, 고등과정 12 학급, 전공과정 8 학급으로 총 45 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총 167명이 근무하고 있고, 재학 중인 학생은 총 335명이다.

3) 김수진

김수진 선생님은 여자 만 27세로 시각장애 1급의 전맹교사이다. 김수진 선생님의 교직 입직 시기는 2015년 3월이고, 인터뷰 당시 교육 경력은 2년 9개월이었다. 그리고 현재 초등 과정에서 교과 전담 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김수진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는 C시에 있는 공립 지적장애학교이다. 이 학교의 학급은 유치원 1학급, 초등과정 12학급, 중학과정 6학급, 고등과정 6학급, 전공과정 6학급으로 총

1)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24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2호)

31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총 87명이 근무하고 있고, 재학 중인 학생은 총 186명이다.

4) 이서현

이서현 선생님은 여자 만 27세로 시각장애 1급의 전맹교사이다. 이서현 선생님의 교직 입직 시기는 2015년 9월이고, 인터뷰 당시 교육 경력은 2년 3개월이었다. 그리고 현재 중등 과정에서 교과 전담 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서현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는 D시에 있는 공립 지적장애학교이다. 이 학교의 학급은 유치원 4학급, 초등과정 7학급, 중등과정 6학급, 고등과정 4학급, 전공과정 4학급으로 총 25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총 83명이 근무하고 있고, 재학 중인 학생은 총 121명이다.

2. 자료 수집

자료는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이었다. 수집한 주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학교에서 초임 전맹교사가 경험한 교직 생활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의 장소와 시간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심층 면담을 위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를 추천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심층 면담이 이루어진 장소는 서울, 대전 등의 지역의 조용한 스터디카페 또는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학교 등이었다. 심층 면담은 개방적인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과정에 연구 참여자의 자유로운 반응을 충분히 허용하였다. 다만, 효율적인 면담 진행을 위하여 가이드 질문을 준비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심층 면담은 1:1로 진행하였고, 1인당 면담은 1~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연구 참여자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략 1회에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사전 동의 아래 심층 면담의 전 과정을 녹음하였다. 이때 사용한 녹음기기는 2대(TASCAM DR-100MK II, PHILIPS VOICE TRACER)를 사용하였다. 녹음을 통해 얻은 자료는 면담 후 3일 이내에 연구자와 연구보조자에 의하여 전사하였다. 전사한 내용은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동료 연구원과 함께 내용 점검을 통하여 전사과정에 있을 수 있는 오류를 점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한 최종 전사본은 A4용지 총 131쪽 분량이었다. 둘째, 자료 분석의 효율성을 위하여 초임 전맹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환경과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홈페이지 검색과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등과 같은 문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심층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보여주는 비언어적 단서는 연구자가 현장 일지에 직접 기록하였고, 분석 과정에서 참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2〉 심층 면담 질문 내용

영역	내용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하루 일과 ▸ 담당 업무와 역할 ▸ 수업 준비 과정 ▸ 수업 실행 과정 ▸ 표시 과목과 학교에서 담당하는 교과목 ▸ 교직 생활 초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점 ▸ 교직 생활 초기에 가장 혼란 했던 점 ▸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과 해결방법 ▸ 교수·학습 과정에서 어려움과 해결방법 ▸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 ▸ 수업 실행 과정에서 학생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대처
학교 구성원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와의 관계 ▸ 학교 관리자와의 관계 ▸ 학부모와의 관계 ▸ 보조 인력과의 관계 ▸ 학교 구성원과 관계에서 어려움과 해결방법 ▸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과 학교 구성원과 관계에 대한 만족도
교직 수행을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장애 교원에 대한 지원 정책 ▸ 현재 장애 교원에 대한 지원 정책의 문제점 ▸ 장애 교원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 ▸ 스스로 인식하는 장애 교원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위한 준비해야할 점

3.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Spradley(1980)의 분석 방법에 따라 심층 면담 과정을 통하여 수집한 전사 자료를 분석하였다(홍재영, 2017b). 분석 과정은 전사, 코딩, 주제 또는 의미 생성의 과정으로 단계적, 그리고 귀납적으로 진행하였다. 귀납적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NVIVO 11'을 이용하였다. 'NVIVO 11'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원자료에 대한 범주화, 조직화를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다. 분석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자료는 전사하여 원자료를 생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NVIVO 11'에서 효과적으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PDF 형태의 자료를 생성하였다. 둘째, 'NVIVO 11'프로그램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 PDF 형태의 자료를 불러들였다. 셋째, 연구자는 'NVIVO 11'프로그램에서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 가면서 지적장애학교에서 초임 전맹교사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 자료에서 나타나는 단어, 문장, 문단을 대상으로 기초 노드(Nodes)를 생성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생성한 기초 노드는 161개였다. 넷째, 기초 노드를 반복적으로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1차 상위 노드를 생성하며 범주화하였다. 범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2차 상위 노드를 생성하며 발전시켰고, 최종 트리 구조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분석 결과

범주 (최종 노드)	하위 범주 (2차 상위 노드)	개념(1차 상위 노드)
구성원 및 환경과 갈등: 배려와 배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동료교사 보다는 장애가 있는 사람 동료교사들의 부정적인 인식
	의미 없는 배려	전맹교사의 희망과 상관없는 업무 배정 업무에서 배려를 가장한 배제 수업에서 원하지 않는 배려
	기약 없는 지원 체계	개인적인 노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환경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부족 전맹교사를 위한 지원 인력 및 시스템의 부족
수업에서의 갈등: 막막함	학생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직전 교육에서 배운 학생의 특성과 실제 현상이 다름 지적장애학생의 특성을 모르고 수업을 시작함
	잘 가르치고 싶어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교과를 가르치고 싶음 수업에서 학생들의 부적응행동 대처에 항상 반 박자 늦음 학습 특성에 따른 교수법 지식이 부족
내적 갈등: 정체성 혼란	누가 가르치는 것인가?	수업을 지원해 주는 인력과 갈등 수업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로 인한 혼란과 자괴감
	타협 그리고 불안	학교에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한 적절한 타협 현실 안주로 인한 불안감

4. 연구의 진실성

이 연구의 진실성을 위하여 심층적인 자료의 분석, 동료 연구자 검토, 원자료에 대한 다각적 검증, 참조 자료의 활용 등의 준거를 활용하여 연구 내용을 점검하였다(Lincoln & Guba, 2005).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심층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 가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둘째, 질적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동료 연구자와 내용을 공유하면서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 판단과 오류를 점검하였다. 셋째, 분석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의미는 다양한 자료원에서 그 내용을 뒷받침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발견한 기초 노드와 상위 노드는 원자료와 함께 'NVIVO 11'프로그램에 모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참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5. 연구 윤리

이 연구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이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한 뒤 구두 동의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았다. 심층 면담을 전사한 자료는 서로 다른 연구 보조자에 의해서 녹음 자료와 비교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전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연구 참여비를 지급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NVIVO 1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귀납적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지적장애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들은 '구성원 및 환경과 갈등: 배려와 배제', '수업에서의 갈등: 막막함', '내적 갈등: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구성원 및 환경과 갈등: 배려와 배제

연구 참여자들은 지적장애학교에 근무하면서 구성원 및 환경과 지속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구성원 및 환경과 갈등: 배려와 배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를 구성하는 하위 범주는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의미 없는 배려', '기약 없는 지원체계'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지적장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들은 비장애인 교사들이 자신을 동료 교사 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전맹교사

들은 비장애인 교사들이 자신들을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동료교사들은 처음에 생각해 보면 뭔가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내가 혼자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김수진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아니야 괜찮아 부담감 갖지 말고 미안해하지만, 선생님이 아무래도 일반 교사랑은 다르잖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생님은 좋은 의도로 말씀 하셨는데 저는 '아,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서현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생활을 할 때, '교사들 중에 누군가는 저를 항상 옆에서 도와줘야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관계가 평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딘가를 가면 교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준 사람들은 같은 교사로 인정하기 보다는 그냥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평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움의 대상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병준 선생님의 인터뷰 기록 중>

연구 참여자들은 동료교사들이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까닭은 강병준 선생님의 면담 자료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동료교사들이 자신을 도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부터 동료로서 평등한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동료교사들의 생각은 전맹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연결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교사들이 '저 사람은 장애가 있으니까 같은 봉급을 받지만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다 하지 못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교사가 일이 더 늘어나고 비장애인 교사들이 전맹교사들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장애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병준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우선 그런 편견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이 안보이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 '업무도 어떻게 할 것이다,' '보조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중략)...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친절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저한테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알았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노는 것 같겠구나, 내가 자기들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이서현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전맹교사들은 동료교사들이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 또는 무기력한 존재 등과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자신 때문에 비장애인 교사들이 학교 업무가 증가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비장애인 교사들이 자신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전맹교사들이 느끼고 있는 비장애인 교사들의 부정적인 인식들로 인하여 이들의 학교생활에 어려움은 점점 깊어질 것이다.

진짜 난감한데요, 이를테면 간단한 쪽지하나 보낼 때도 마우스로 찍어야 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막 엄청 바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말 꺼내기도 미안해요...(중략)...작년에는 3,4월이 제일 힘들었고요, 한 학기는 힘들었는데 3월부터 4월까지의 내가 여기에 왜 있나 그런 생각 밖에 안 들었었어요...(중략)...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를 이 학교에서 '잉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중략)...학교 안에서 홀로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최준식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이상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전맹교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인식, 즉 비장애인 교사들이 자신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것이라는 인식들은 전맹교사와 동료교사의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전맹교사의 이러한 생각은 관계형성 면에서 잘못된 순환의 시작점으로 작용하여 비장애인 교사와 동료로서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연결 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전맹교사와 학교 구성원들과 관계가 서서히 단절되어 가고, 심지어 최준식 선생님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 안에 홀로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끊고, 비장애인 교사와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의미 없는 배려

지적장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들은 교육활동과 학교업무에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배려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제가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 동료교사들이 시각장애 교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대체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업무를 안주고 그랬던 거겠죠, <강병준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첫해에는 사실 업무가 없었어요, 업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서운했는데 교감선생님에게 제가 업무가 없는 것에 대하여 여쭙어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면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교감선생님께서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처음이니까, 수업이나 이런 것에 좀 더 중점을 두라고 했어요, 학교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어요, <김수진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배려를 받아서 학교업무에 배정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맹교사들은 학교생활을 하는데 불편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이처럼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전맹교사를 위한 배려가 전맹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배려가 아닌 업무에서 배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저는 거의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인데...(중략)...학교 업무를 이것저것 해봐야 학교 돌아가는 것도 알고 그럴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중략)...사실 다른 분들은 저를 위한 배려를 해 준거고, 저는 배제인데, 몸은 편한데 마음이 엄청 불편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5시 넘도록 일하는데 눈치 보이기도 하고, 작년에는 진짜 보통 가시방석이 아니었어요,<최준식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우리가 장애가 있어서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안 주는 거, 이것은 전혀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애교원 당사자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건 못할 것 같다고 할 수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지 그냥 장애교원의 입장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추측을 해서 '업무에서 빼주면 이 사람이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병준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의미 없는 배려는 수업 장면에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수업에서 전맹교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장애인 교사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하나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교사에 대한 수업에서 의미 없는 배려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사님이 점심 드시러 가는 시간이어서 저랑 애들만 교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문제행동을 했는데 그걸 담임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보셨어요, 담임 선생님은 제가 애들이 문제행동을 하는 걸 알면서 지도를 안했다고 생각하시면서...(중략)...그런데 가만히 생각 해 보니까 제가 수업하는 시간인데 담임 선생님이 교실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중략)...저희학교 분위기가 담임 선생님이 나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를 배려해서 교실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 해요, <김수진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학교 구성원이나 비장애인 교사들의 의미 없는 배려는 전맹교사가 지적장애학교에 근무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맹교사에 대한 진정한 배려는 당사자의 지지와 동의가 있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배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업 장면에서의 전맹교사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기약 없는 지원 체계

지적장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들은 자신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해주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전맹교사들이 자신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지원 인력을 스스로 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은 예산도 없고, 계획 수립 된 것도 없다,’ ‘좀 고생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중략)...작년 3월 한 달간 거의 답이 없었어요, 다행히 제가 아는 분의 소개로 국가 근로 장학생 제도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00대학교에 있는 대학생이 우리 학교에 파견 나오는 식으로 해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지금은 그 학생들 덕분에 한결 학교생활이 편안해 졌어요, <최준식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예를 들어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갈 때, 제가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자나 활동보조인을 구해서 같이 가요, 그분들이 시간이 안 되면 저는 현장학습을 갈 엄두를 내지 못해요, <권수연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초임 전맹교사들은 학습 자료나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구할 때에도 개인적인 노력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활동이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구할 때 교육당국의 공식적인 지원시스템이 아닌 ‘시각장애교사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자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교사회’에서 정보를 많이 교환해요...(중략)... 제가 학교 업무 처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물어 보기도 해요...(중략)...그리고 학습 자료라든지 학생들 가르칠 때 필요한 교과서 자료들은 모두 시각장애교사회에서 자료를 구해요, <이서현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시각장애교사회'가 있어요, 거기서 지적장애아나 특수학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다른 선배 교사들한테 수업이나 업무에 필요한 팁을 받아요,
<최준식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이처럼 비공식적 지원 시스템을 통해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스스로 구하고 있었다. 또한, 전맹교사들이 학교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업무지원 시스템 등에 대하여 접근성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청 메신저도 그렇고 나이스 업무포털도 그렇고 접근성만 갖춰지면 혼자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쉬운 것 같아요...(중략)...시각장애인 교사들이 지적장애 학교로 가는데 그곳에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공학기기나 소프트웨어 등의 접근이나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된다면 그래도 조금 더 적응을 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강병준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업무포털을 사용 하는 게 100프로 접근이 안 되거든요...(중략)... 요즘 학교에서 연락은 모두 교육청 메신저를 통해 거의 연락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접근이 어려우니까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회의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최준식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이와 같은 어려움들은 전맹교사들로 하여금 학교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 안에서 동료교사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의 제한으로 동료교사, 더 나아가 학교 안에서 정보 교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맹교사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시각장애 교사에 대한 지원 체계가 없어요, 시각장애 교사 지원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지원 정책 담당자나 부서도 없어요, 정책적으로 도교육청 내에 장애 교원의 고충을 들어주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나 전담인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병준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처음에는 교육청 자체에서도 업무 보조 인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지원이 안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사회복지요원을 저한테 배치할 여유가 없었고, 학교도 맨 처음에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모르더라고요...(중략)...장애 교원에 대한 보조 인력 채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을 확보하고, 매년 채용해서 무조건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장애 교원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그런 지원 인력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장애 교원이 그분들과 호흡을 맞춰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준식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 있으면 제가 좀 더 수업을 잘하고 애들하고도 잘 생활하지 않을까 생각해요.<김수진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이상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활동을 포함한 효율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지원 인력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임 전맹교사들은 학교나 시·도교육청 단위에 장애인 교원 지원에 대한 전담 부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전맹교사들은 지원 인력의 제공이야 말로 장애인 교원이 학교생활을 보다 잘 할 수 있고,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사례에서 연구 참여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극히 일부 시·도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과 업무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의 정책이 수립 및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들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로 비추어 보았을 때,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준다면 장애인 교원들도 비장애인 교사들의 도움 없이 훌륭하게 교직 생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장애인 교원의 효율적인 교직수행과 교직 적응을 위하여 지원정책과 학교문화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선행연구(박경옥, 서선진, 2017; 조영재, 2015; 허세영, 2013)에 의하면 장애인 교원의 지원 요구에 근거한 지원 정책과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학교 문화가 장애인 초임교사들의 원활한 교직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초임 전맹교사의 원활한 교직 적응을 위해서 장애인 교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진정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수업에서의 갈등: 막막함

연구 참여자들은 지적장애학교에 근무하면서 교사의 기본적인 역할인 수업과 관련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수업에서의 갈등: 막막함’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를 구성하는 하위 범주는 ‘학생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잘 가르치고 싶어요' 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지적장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는 자신이 직전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지적장애학생의 특성과 교육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특성이 서로 달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특수학교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성인 장애의 증증화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고 하였다.

학부 때 교육봉사를 지적장애 학교에서 했었는데 그때에는 장애정도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경증의 아이들을 봐서 그런지 '지적장애 학생들과도 생활할 만하겠나.' '수업할 만하겠나.' 라고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깐 여기서서는 아니더라고요, <강병준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초임 전맹교사들은 지적장애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거의 모르고 지적장애학교에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적장애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맞추어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을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사실 학교에 오기 전에는 거의 지적장애아이들 특성 몰랐어요, 거의 몰라서 말로만 들어서는 진짜 모르더라고요...(중략)...그래서 수업에 실제 투입되기 전에 지적장애 아이들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라도 한 일주일이라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죠...(중략)...지적장애학생들 보는 자체가 처음이어서 학생 파악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애는 너무 멀쩡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애는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최준식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지적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교사로서 대학 4년 다니고 임용 시험 봐서 특수학교에 오긴 왔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 교사로서 활동함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중략)... 지적장애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매우 당황스러웠죠, 인사를 처음 하는데 어떤 친구는 계속 반복해서 같은 말만하고, 어떤 친구는 대답이 없고, 어떤 친구는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막 자해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랐던 것 같아요, <강병준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지적장애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전맹교사들은 직전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경험이 실제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연수 과정 등을 통하여 지적장애학생들의 실제적인 특성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맹교사들의 생각들은 그대로 수업에서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제가 가끔 속는다고 해야 하나? 의사소통이 너무 멀쩡해서 당연히 이걸 알겠지 하고 물으면 몰라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중략)...한명 한명이 너무 달라서 한번에 열 명이나 되다보니까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수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최준식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하는 지, 어떻게 수업할지도 걱정이 되고...(중략)...어떻게 해야 수업을 내가 주도적으로 될 수 있을까? 아이들의 특성이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수진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지적장애학교에서 수업을 계획하고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학생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교사로서의 기본 역할인 가르치는 영역에서의 어려움은 수업 전문성과 직접적으로 연결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전맹교사들이 쉽게 좌절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2) 잘 가르치고 싶어요

지적장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에서 배정하는 특정 교과를 담당하여 수업을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에 대하여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가 처음 학교 왔을 때 다른 교과를 신청해보려고 했어요, 제가 왔을 때 학교에 계신 관리자나 경력 선생님들께서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선생님이 어떤 교과를 맡고 있는지 알아보고 저에게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잘 하잖아요,' 라고 해서 음악을 맡게 된 거예요...(중략)...제가 음악 교과를 담당하였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음악적인 소양을 쌓기 위해서 연수를 듣기는 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 악기를 배우는 것이 수업의 질 향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강병준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냥 다른 과목을 담당을 지원 했는데, 수학이나 과학을 맡게

되면 그 교과는 너무 시각적이고 개별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중략)...담당 부장님이 저에게 '그래도 음악이나 사회 교과를 맡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하셨어요.<김수진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저는 음악에 문외한인데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1년을 열심히 배웠어요, 지금은 같이 반주도 하고, 노래도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쫓아 다니면서 저 스스로 배웠죠...(중략)...여기 와서 배웠어요, 저는 음악을 가야금, 핸드벨 정도만 했지, 피아노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중략)...아주 전문성이 떨어졌었어요, <이서현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지적장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전맹교사들은 자신이 잘 가르칠 수 있는 교과를 담당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전맹교사들은 학교에서 배정하는 교과를 담당하여 지적장애학생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맹교사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에 대한 지식과 그에 따른 교수법 기술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전맹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 상황에서 지적장애학생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똑똑한 애들은 제가 안 보이는 걸 이용해서 제 머리 위에 있으려고 하고...(중략)...자기가 화나니까 자해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자기얼굴을 쳐가지고 코피가 터지고, 손을 쥐어뜯고 해요, 그럴 때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려도 제가 늘 한 박자 늦어요, 그래서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중략)...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제가 늘 한 박자 늦어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최준식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더불어 사건사고, 그 부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해주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 해줘야하는데 책임은 내가 지고 그 상황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하니까 그게 조금 많이 걱정했던 것 같아요, 학생이 수업시간에 다치거나 상처가나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많이 들었죠, <강병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문제행동 있을 때 실무원에게 부탁을 해요, 어떤 학생들이 문제행동 하거나 그러면 제게 얘기해달라고하고, 실무원이 저한테 얘기하면 그때 지도를 하는

식입니다. 늘 늦는 것 같아요. <김수진 선생님>

초임 전맹교사들은 수업시간에 장애학생들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대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부적응 행동에 대한 일차적인 대처에 시각적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초임 전맹교사들은 수업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게 될 것이고, 교사로서 전문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학생의 발달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 내용을 조직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타당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정원 외, 2011; 김희규, 주영효, 엄준용, 2016; 조대연, 2009). 이러한 맥락에서 특수교사가 수업에서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과 지도 능력과 부적응 행동 지도에 대한 적절한 대처 능력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곽민지, 조성문, 송해덕, 2014; 남윤석, 2011, 홍재영, 2017a). 이러한 견해에서 바라본다면, 초임 전맹교사들이 수업에서 겪는 경험들로 인하여 수업 전문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축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 교사의 경험이 교수 상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은주, 신미정, 변지혜, 2011; 정유경 외, 2018)에 비추어 보더라도 초임 전맹교사가 수업 장면에서 겪는 부정적인 경험들은 향후 수업 전문성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임 전맹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내적 갈등: 정체성 혼란

연구 참여자들은 지적장애학교에 근무하면서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내적 갈등: 정체성 혼란’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를 구성하는 하위 범주는 ‘누가 가르치는 것인가?’, ‘타협 그리고 불안’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누가 가르치는 것인가?

지적장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는 가르치는 과정인 수업의 실행에서 자신을 지원해 주는 지원 인력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준비와 수업 진행은 보통 거의 내가 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건지 실무원이

가르치는 건지, 보조자가 가르치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눈으로 해야 하는 과제를 할 때에 학생들이 저보다 실무원이나 보조자를 먼저 찾아요...(중략)... 수업구성을 할 때에도 학생들에게 이런 저런 활동을 하고 싶는데 안 될 것 같아 안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업 운영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최준식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수업 중에 발생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걸러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수업을 하는 건지, 복지 일자리처럼 채용 돼서 월급을 받는 건지,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서 저는 조금 불만족 하고 있어요...(중략)...제가 수업을 하는지, 실무원이 수업을 하는지 보조원이 수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수교육 실무원이 있는 반 같은 경우는 실무원이 학생 특성이나 이런 것을 저보다 더 잘 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애는 이거 못해요, 애는 이거 할 수 있어요' 단정적으로 이렇게 한계를 지어버리고 교사가 뭘 하려고 하는데 '애는 못해요', 라고 하면 서로 간의 갈등도 있어요, <강병준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처음에는 그분들이 '애들이 이거 읽어봐'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발언은 교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은 제 손이 되는 거지 입이 될 필요는 없다,' 라고, <이서현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전맹교사들은 교사 본연의 역할인 수업 실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맹교사들이 수업을 실행할 때, 시각적 수행이 필요한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지원 인력의 도움을 받게 된다.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이 지원 인력과 1차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 인력이 교사의 기본적인 영역을 침해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에서의 교사 역할에 대한 정체감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 스스로 수업에서 지원 인력의 도움을 받아 수업하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적장애학교에서 전맹교사의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서 지원 인력에 의한 수업 보조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업에서 교사와 지원 인력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통한 협력적 수업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타협 그리고 불안

지적장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들은 교육활동을 포함한 학교생활

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교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윗사람들이 저에게 '네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중요 하다, 네가 모든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서서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이런 일을 안시키나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숨만 쉬고 살아요, <최준식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아울러, 전맹교사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아래의 사례에서와 같이, 전맹교사들은 학교문화에서는 수업 보다 업무를 잘 처리 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교사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수업 준비 시간보다 업무를 처리하고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는 교사의 능력을 수업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수업은 공개수업이나 연구수업 이럴 때만 준비를 하고, 평소에는 업무나 잡무에 신경을 더 많이 쓰죠...(중략)...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누가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한다, 이러면 수업은 모르잖아요, 수업 보다 그 사람들이 외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업무에서 그런 능력 평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중략)...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 보다는 업무 처리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강병준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또한, 전맹교사는 학교생활을 적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실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의사를 주장하기보다 현실과 적절한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적장애학교에서 전맹교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학교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으로 인하여 전맹교사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전맹교사는 학교생활에서 현실과 적절한 타협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었다.

학교에서 업무에서 배제하였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도 싶었지만 학교에서 배려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막상 제 의견을 끝까지 내세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걱정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업무를 주면,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김수진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예전에는 그래도 뭐 좀 해봐야하지 않나 했는데,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보

니까 '시키면 어떡하지'라고 생각 할 때도 있고, 또 너무 업무를 안하다보니까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가 도태되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최준식 선생님의 면담 기록 중>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인 가르치는 일과 직장인으로서 겪게 되는 경험으로 인하여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선행연구(노지영, 2014)에 따르면 교사로서 전문적인 영역인 가르치는 일에 대한 타인의 간섭이 있을 경우 긴장이나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였다.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은 전맹교사들로 하여금 교사로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맹교사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현실과 적절한 타협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전맹교사들이 내적 갈등을 겪게 되고 더 나아가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래의 연구에서 보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수업에 관한 신념과 가치관에 같은 내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모용희, 김규수, 2013; 전병운, 정은혜, 2013). 따라서 교직 수행의 출발점에 있는 초임교사들의 부정적 심리의 반복적인 경험은 이들의 신념과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전문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적장애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들의 긍정적 가치관과 신념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활동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지적장애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의 경험을 토대로 그들이 교직 적응과정에서 겪는 갈등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눈덩이 표집을 통하여 지적장애학교에 근무하는 4명의 초임 전맹교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지적장애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들의 경험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NVIVO 1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귀납적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지적장애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들은 '구성원 및 환경과 갈등: 배려와 배제', '수업에서의 갈등: 막막함', '내적 갈등: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들은 구성원 및 환경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초임 전맹교사들은 구성원들이 자신들을 동료교사 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 활동이나 학교 업무에서 초임 전맹교사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의미 없는 배려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환경면에서 초임 전맹교사들의 효율적인 교육 활동과 학교생활을 지원하지 못하는 지원체제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교사는 교육 현장에 근무하면서 비장애인인 교사의 교직 경험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권순우, 2013). 또한, 선행연구(이예슬, 2017; 허영주, 2017; Burden, 1983)에 따르면 초임교사들은 교직발달 단계상 ‘생존기’에 있으며, 이 시기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부여 받은 역할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초임 전맹교사들은 ‘장애인 교원’과 ‘초임교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비장애인 초임교사들보다 더욱더 많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적장애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들은 수업에서의 막막함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초임 전맹교사들은 지적장애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수업에서 교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수업을 잘 하고 싶지만,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교과에 대한 지식과 그에 따른 교수법 지식이 부족하여 갈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게 수업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활동으로, 교사라면 누구라도 성공적인 수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다(김영한, 서영, 2014; 홍재영, 2017a). 이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지적장애학교에서 초임 전맹교사들이 겪고 있는 수업에서의 막막함은 교사로서 핵심적인 역할에 대한 갈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향후 초임 전맹교사들이 전문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적장애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들은 자기 자신과의 내적 갈등을 통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과 지적장애학교에서 적응하기 위하여 현실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나타나는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교사 시기에 교사는 수업에서 학생과의 상호작용, 학교문화에로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교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해 간다(박주희, 홍원표, 2018; 윤희경, 2016; ; Kilgore, Ross, & Zbilowski, 1990). 초임 전맹교사들은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과 학교 업무에서 역할에 대하여 끊임없이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긴장과 갈등으로 인하여 초임 전맹교사들은 심리적 소진상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노지영,

2014; 홍우림, 2015), 초임교사로서의 새로운 역할 수행에서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조대연, 2009). 이와 같은 현상은 초임 전맹교사들이 교사로서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지적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학교문화 안에서 사회화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장애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초임 전맹교사들의 교직 적응을 위한 정책 마련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를 포함한 장애인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장애인 교원 임용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교원을 선발하고 있지만, 교직 임용 후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지원 부서를 마련하고, 이러한 조직을 통해 지원 인력 교육, 소프트웨어 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위해서 현재 교육 현장에 있는 장애인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특수교육통계와 같은 국가통계체계를 통해 장애인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지적장애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초임 전맹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곽노의, 배정호, 2012; 김종미, 2009; 박주희, 홍원표, 2018; 신봉섭, 2010), 초임교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교육활동에서 초임교사에게 필요한 정서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초임교사들의 교직 적응과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특수교육 현장에 있는 장애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특수교육 현장에 있는 경력 있는 장애인 교원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떻게 교육현장에 적응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 교원으로서 특수교육 현장에 적응하는 것은 매우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경력이 있는 장애인 교원의 교직 적응과정을 탐구하여 장애인 교원이 교직 적응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면, 초임 장애인 교원의 효과적인 교직 적응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노의, 배정호 (2012). 멘토링을 통한 초임 남자유아교사의 교직 적응과정 탐색: 관계형성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6(2), 31-60.
- 곽민지, 조성문, 송해덕 (2014).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직무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2), 149-173.
- 권순우 (2013). 청각장애교사의 교직 생활 적응에 대한 사례 연구. **언어치료연구**, 22(4), 181-206.
- 권혁일 (2010). 예비 초등교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초등교육연구**, 23(1), 109-140.
- 김경철, 김안나 (2010). 세 명의 초임교사가 경험한 공립유치원의 3월 이야기. **생태유아교육 연구**, 9(3), 109-129.
- 김민환 (2016). 수업에 관한 저경력 교사들의 인식과 실행과정상의 주요 문제 분석.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6(3), 335-358.
- 김영한, 서영 (2014). 특수학급 교사의 교직 적응탄력성이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전문성 인식을 매개 변인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3(2), 147-167.
- 김은주, 신미정, 변지혜 (2011). 생태유아교사 되어가기: 경력에 따른 생애사적 접근. **생태 유아교육연구**, 10(4), 119-147.
- 김은진 (2017). 동료 멘토링을 활용한 중등 예비음악교사들의 교사로서의 자기효능감 향상과 동료 멘토링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3), 305-318.
- 김정원, 박소영, 김기수, 정미경 (2011).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종미 (2009). 멘토링에 대한 초등 초임교사의 인식. **초등교육연구**, 22(4), 301-326.
- 김향지 (2009). 일반초등학교 초임 특수교사의 고충과 교직 적응 지원 방안. **지적장애연구**, 11(3), 335-350.
- 김희규, 주영효, 엄준용 (2016). 중등학교교사의 생애단계별 직무역량 분석. **교육문제연구**, 59, 163-189.
- 남윤석 (2011). 수학 수업시연에서 나타나는 예비특수교사의 학습 경험 분석. **지적장애연구**, 13(3), 241-264.
- 노지영 (2014). 한국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교직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교원교육**, 30(3), 73-112.
- 모용희, 김규수 (2013). 유아교사의 교직 전문성과 교직 신념에 관한 인식 연구. **열린유아 교육연구**, 18(1), 241-260.
- 박경옥, 서선진 (2017).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특수교육 교원이 겪는 교직 적응과정에서의 도전과 지원 요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6(1), 203-226.
- 박병도 (2004). 초임 특수체육 교사의 교직 적응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특수체육연구**, 2, 81-95.
- 박병도, 손천택 (2005). 초임 특수체육 교사들의 교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2(2), 109-126.

26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2호)

- 박재범 (2005). 특수학교 교사들의 교직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연구**, 12(2), 161-176.
- 박재범 (2010). 중등 특수학교 초임교사의 교직 적응에 관한 사례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7(2), 53-72.
- 박재범, 양정호 (2007). 특수학교 초등과정 초임 치료교육 교사의 교직 적응에 관한 사례 분석. **초등교육연구**, 20(3), 469-494.
- 박주희, 홍원표 (2018). 초등학교 초임교사가 인식하는 멘토링 효과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교육연구**, 35(1), 2074-231.
- 신봉섭 (2010). 학교조직문화와 초임교사 멘토링 및 교직 적응 간의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7(1), 277-300.
- 안아라, 김한별 (2013). 초등학교 교직에서 남교사의 정체성 탐색. **교육문제연구**, 48, 81-108.
- 양승기, 김호연 (2011) 초등특수학급 신규 기간제 교사의 교직 적응 어려움 및 개선 요구에 대한 질적 접근. **통합교육연구**, 6(2), 71-98.
- 윤희경 (2016). 초임 유아교사가 교직 생활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4), 777-798.
- 이명훈 (2016). 초임 기술교사의 교직 적응의 어려움과 지원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6(3), 301-324.
- 이순자 (2017). 유아특수교사의 교직문화 적응과정: 자부심을 지닌 유아특수교사로의 정착을 향해 나아가기. **교육인류학연구**, 20(4), 91-159.
- 이예슬 (2017). 초등 초임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요구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4(3), 53-80.
- 이윤식, 김광범 (2007). 중등학교 초임교사의 교직갈등 요인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5(2), 145-164.
- 이윤식, 김정휘, 박영숙, 이성은, 정영수, 조동섭 외 (2007). **교직과 교사**. 서울: 학지사.
- 이주연, 한대동 (2005).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교직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교육연구**, 15(1), 1-34.
- 전국 시·도교육청 (2015). 2016학년도 공립 특수학교(초등)교사·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 전국 시·도교육청 (2016). 2017학년도 공립 특수학교(초등)교사·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 전국 시·도교육청 (2017). 2018학년도 공립 특수학교(초등)교사·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 전병운, 정은혜 (2013). 중등 특수교사의 학습기회와 사회적지지 및 교육신념이 수업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교육연구**, 30(4), 237-258.
- 정유경, 선혜연, 오정희, 김영빈 (2018). 교사의 심리적 소진 극복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6), 895-917.
- 정형수, 양정호 (2016). 초등학교 신규교사의 학교업무 수행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3(4), 297-328.

- 조대연 (2009). 교사의 발달단계별 직무역량 요구 분석: 서울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국교원 교육연구**, 26(2), 365-385.
- 조영재 (2015). 초등 초임교사 교직 적응곤란 영향 요인 분석. **초등교육연구**, 28(1), 133-157.
- 조정우, 임경원 (2017). 초등학교 초임 특수교사의 교직 생활. **특수교육논집**, 21, 23-47.
- 최혜진, 권유선 (2017). 공립유치원 초임교사들의 임용시험 경험이 교직 적응과정에 주는 의미. **생태유아교육연구**, 16(3), 1-30.
- 허세영 (2013). 정신지체학교에서 농교사의 교직수행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각·언어장애 교육연구**, 4(1), 75-90.
- 허영주 (2017). 초임 초·중등교사의 교직 적응 및 부적응에의 영향 요인.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7(8), 637-646.
- 홍우림 (2015).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28(3), 255-280.
- 홍재영 (2017a). 특수학급 수학 수업에서 나타난 언어적 상호작용 사례 분석. **한국융합 학회논문지**, 8(8), 215-224.
- 홍재영 (2017b). 시각중복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겪는 어려움. **특수교육연구**, 24(2), 158-184.
- 황순영 (2006). 초임 특수교사의 교직 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0(4), 185-210.
- Burden, P. R. (1983). Implications of teacher career development: New roles for teachers, administrators, and professors. *Action in Teacher Education*, 4(4), 21-25.
- Kilgore, K., Ross, D., & Zbilowski, J. (1990). Understanding the teaching perspectives of first-year teacher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1, 28-38.
- Lincoln, Y. S., & Guba, E. G. (2005). Paradigmatic controversies, contradictions and emerging confluences.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Stolp, S., & Smith, S. C. (1995). *Transforming school culture: Stories, symbols, values & the leaders rol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386783).

Conflicts Experienced in Adapting to the Teaching Profession by Newly Appointed Teachers with Blind Working at a School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Hong, Jae-Young

Jeonj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newly appointed teachers with visual impairments working at a school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t also intended to discover the conflicts they went through in the adaptation process of their teaching profession. To achieve these purposes, this study utilized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ology based o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symbolic interactionism under the constructionist epistemology. The study participants were four newly appointed teachers with visual impairment working at a school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y were selected using snowball sampling. To investigate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they were interviewed and relevant data were collected. Inductive analysis on the collected data was made with the NVivo 11 program.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newly appointed teachers with visual impairment who worked at a school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xperienced conflicts with other members and their surroundings, consideration and exclusion, conflicts during their classes, hopelessness, and internal conflict, such as identity conf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on policy measures that could improve expertise of newly appointed teachers with visual improvement working at a school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upporting their adaptation to the teaching profession.

Key Words : teachers with blind, school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newly appointed teacher, adaptation to teaching profession, qualitative case study

논문 접수: 2018. 05. 15 심사 시작: 2018. 05. 15 게재 확정: 2018. 06. 19